

# 《훈민정음》 ‘해례’의 집필 과정에 대한 탐색 - 텍스트 생산자와 생산 과정을 중심으로 -

김부연(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 <목차>

1. 머리말
2. ‘해례’의 집필자와 협동적 글쓰기
3. ‘해례’ 생산 과정에서의 상호텍스트성
4. 맺음말

## 1. 머리말

한 편의 텍스트는 여러 텍스트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면 그 텍스트와 관련된 여러 텍스트가 존재하게 된다. 세상의 모든 텍스트의 구성은 다른 텍스트의 영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훈민정음》 ‘해례’는 ‘예의’ 텍스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 텍스트와 새 텍스트의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를 면밀히 밝혀본다면 《훈민정음》 해례본 텍스트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최근의 논의로는 백두현(2009), 이광호(2010), 정우영(2014) 등이 주목된다.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해례본 전체 구조 안에서 ‘예의’와 ‘해례’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이들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국어학적 측면에서

의 이러한 연구는 이들 텍스트가 지닌 가치와 해례본의 위상을 높이는 데 충분히 의미가 있다. 국어교육의 틀에서도 이러한 분석 결과가 교육의 내용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국어교육에서는 텍스트 자체를 해명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과정 중심의 국어교육이라는 성격 상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생산하고 수용하는 과정에 관심을 기울인다.

본 연구는 텍스트의 상관관계가 형성되었던 소통의 장에서 ‘해례’ 텍스트가 어떻게 생산되었 지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편찬 과정에 대한 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례’ 텍스트 생산 과정을 명확히 규명할 수는 없다. 생산된 결과로서의 ‘예의’와 ‘해례’ 텍스트, 그리고 관련 방계 자료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텍스트 외부에 존재하는 필자 관련 요인들에 대한 정보, 이들은 어떤 전략을 사용하여 쓸 내용을 마련하고 구조화하였는지, 의미 구성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등 외재적 측면이라 할 수 있는 텍스트 생산자 및 텍스트 생산 과정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하나의 텍스트가 완성되기까지 그 과정의 여러 부면을 추론해 보고 글쓰기 과정에서 필자가 인식하는 다양한 국면들이 텍스트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임을 확인해 본다.

## 2. ‘해례’의 집필자와 협동적 글쓰기

주지하다시피 《훈민정음》의 ‘정인지 후서’에는 해례본 텍스트가 집필자 이원 구조로 편찬된 것임을 명확하게 알려준다.

계해년 겨울,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고 간략하게 例義를 들어 보이시고 [중략] 드디어 우리들에게 상세한 해석을 가하게 하시어 이것으로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시매, 이에 신이 집현전 응교 최항, 부교리 박팽년, 신숙주, 수찬 성삼문, 돈령부 주부 강희안, 행 집현전 부수찬 이개, 이선로 등과 더불어 삼가 여러 解와 例를 지어서 그 대강의 줄거리를 서술하고<sup>1)</sup>

세종은 새 문자를 창제하고 간략하게나마 그에 대한 예의(例義)를 직접 들어 보였다[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그리고는 새 문자에 대한 상세한 풀이를 집현전 학사 8인에게 명하였고[命詳加解釋], 왕명에 따라 그들이 ‘해례’를 집필하게 되었다[作諸解及例]는 것이다. 이러한 기록에서 새 문자를 널리 알리고자 자세히 풀어 해설한 이들의 관계와 각 텍스트의 제목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해례’ 부분은 집현전 학사 8인이 공동 집필하였으나 ‘예의’를 바탕으로 해설한 것이므로 마땅히 세종과 의논하여 공동 작업하였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세종은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해례’ 편찬을 위한 의미 공동 구성자라 할 것이다.<sup>2)</sup>

그렇다면 ‘해례’는 집현전 학사 8인에 의해 공동으로 집필된 것인데 과연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하나의 완결된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었을까? 해례본 편찬 과정에 대한 실록 등의 사료(史料)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례’의 공동 집필 과정을 추정한다는 것은 막연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방계 자료를 통하여 해례본의 텍스트 생산 과정을 밝히는 고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필 과정을 전혀 알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백두현, 2009:103 각주 22 참조).

## 1) 세종은 왜 집현전 학사 8인에게 ‘해례’ 집필을 맡겼는가?

세종은 간략한 ‘예의’로서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와 용법을 자세히 설명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훈민정음’ 창제 발표 당시 새 문자에 대한 이론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에 세종은 집현전 학사 명유(名儒) 8

1) 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訓民正音 [중략] 遂命詳加解釋 以喻諸人於是 臣與集賢殿應教崔恒 副校理朴彭年申叔舟 修撰成三問 敦寧注簿姜希顔 行集賢殿副修撰李塏李善老等 謹作諸解及例 以叙其梗槩

2) 이광호(2006, 2012)에서 제시한 가설에 따르자면 기본적으로 ‘해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세종의 ‘예의’가 그렇게 간략하게 요약·정리 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예의’의 간단한 내용으로는 ‘해례’의 내용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인가 요약을 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원문(본문, 텍스트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광호(2006, 2012)에서 제시한 가설의 근거가 일면 수궁이 되는 부분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인지 후서’의 기록에 따르기로 한다.

인을 선발하여 이론을 정비하고자 하였고 그 정리된 이론을 저술하게 한 것이다.<sup>3)</sup> 언문청이 설치된 甲子 2월부터 ‘해례’가 나온 丙寅 9월까지 2년 반, 그러니까 새 문자가 창제되고부터 약 3년의 시간을 두고 해설서가 나왔다. 이것으로 보아 ‘해례’에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으며, 공을 들일 만큼 ‘해례’는 중요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작업에 유독 집현전 학사 8인을 참여시킨 까닭은 무엇인가?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세종은 그들에게 ‘해례’ 집필을 명하였을까? ‘훈민정음’ 창제 직후 ‘해례’ 집필자 8인의 활동 내용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름	《운회》 번역 (1444년) <sup>4)</sup>	요동 정음 탐구 (1445년)	《훈민정음》 ‘해례’ 집필 (1446년)	《동국정운》 편찬 (1447년) <sup>5)</sup>
정인지			○ (대제학)	
최항	○ (교리)		○ (응교)	○ (직제학)
박팽년	○ (부교리)		○ (부교리)	
신숙주	○ (부수찬)	○ (부수찬)	○ (부교리)	○ (응교)
성삼문		○ (성균관 주부)	○ (수찬)	○ (수찬)
이개	○ (부수찬)		○ (부수찬)	○ (교리)
이선로	○ (부수찬)		○ (부수찬)	
강희안	○ (돈녕부 주부)		○ (돈녕부 주부)	○ (이조정랑)

[표 1] ‘훈민정음’ 창제 직후 ‘해례’ 집필자 8인의 활동 내용

- 3) 세종이 직접 선발했는지의 여부는 사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親揀名儒’, 곧 ‘임금이 친히 가려 뽑은 이름난 선비’라는 말이 신숙주의 《保閑齋集》에 부재된 임원준의 서문에 등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世宗創制諺文 開局禁中 極簡一時名儒 親揀名儒 著爲解例 使人易曉”라고 하여 세종이 여러 명유 가운데서 친히 가려 뽑은 학자들을 시켜 ‘훈민정음’의 해례를 저술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도 ‘親揀名儒’는 최항의 《太虛亭集》에 수록된 강희맹의 崔恒墓誌에도 등장한다(자세한 내용은 정광, 2006:43 참조).
- 4) 《세종실록》 103卷 1444년 2월 16일 기사에 따르면 세종은 최항, 박팽년, 신숙주, 이선로, 이개, 강희안 등에게 《韻會》를 언문으로 번역하도록 명하였다는 기록이 있다(命集賢殿校理崔恒、副校理朴彭年、副修撰申叔舟·李善老·李塏、敦寧府注簿姜希顔等, 詣議事廳, 以諺文譯韻會, 東宮與晉陽大君瑄、安平大君瑑監掌其事. 皆稟睿斷, 賞賜稠重, 供億優厚矣. [世宗 103卷, 26年(1444) 甲子 / 명 正統 9年 2月 16日(丙申) 1번째 기사].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이들 6명 외에 세자, 진안대군, 안

[표 1]에서 《훈민정음》 ‘해례’를 편찬한 8인 중 6명이 《운회》 번역 사업에, 5명이 《동국정운》 편찬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운회》 번역 사업과 《동국정운》 편찬 사업은 모두 한어 자음(漢語字音)에 밝은 학자들만이 참여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어 자음의 발음 사전인 운서에 수록된 한자음을 ‘훈민정음’으로 기록하려면,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 전승 한자음을 규범화하려면 참여자들의 필수 자격 조건은 한어 자음에 능통한 자라야만 한다. 그리고 《운회》 번역 사업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지 두 달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훈민정음’과 관련하여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에게 내린 최초의 공식적인 지시였다. 이 지시를 받은 집현전 학사들은 ‘훈민정음’의 창제 과정에 관여해 온 인물들이기에 《운회》 번역의 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해례’ 집필자들은 《운회》의 번역에도 《동국정운》 편찬 사업에 참여한 것이다. 참여자의 중복된 일치와 《운회》 번역, 《훈민정음》 ‘해례’ 집필 그리고 《동국정운》 편찬은 어떠한 관련성은 갖는가? 우선은 ‘해례’ 집필의 핵심 인물들은 이미 한어 자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새 문자 ‘훈민정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수반되어 있었다. 다른 한 가지는 위 세 사업이 동질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연구 결과를 다른 연구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6)</sup>

---

평대군까지 동원하여 감독하게 하였다.

- 5) 이들 외에도 병조정랑 이현로와 승문원 교리 조변안과 승문원 부교리 김증 등이 편찬에 참여하였다. 승문원(承文院)은 이웃 나라들과의 외교문서를 관장하기 위해 조선 건국 초에 설치된 기관이다. 본디 ‘이문(吏文)’을 학습하고 이를 제출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나 이문은 한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1431년(세종 13)에는 승문원에서 한어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한 일도 있었다. 이것으로 보아 승문원 관원들은 필수적으로 한어를 학습한 것으로 보인다(자세한 내용은 강신항, 2004:435 참고).
- 6) 당시 중국의 한자음은 《고금운회거요》에서 35자모, 107운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동국정운》에서는 우리 한자음을 23자모, 91운으로 정리하고 있다. 중국 한자음과 조선 한자음의 차이를 구별한 결과이다. 그런데 《동국정운》에서 제시한 23자모는 《훈민정음》에서 제시한 초성 체계와 일치한다. 《훈민정음》 역시 한자음의 표기를 염두에 두고 한자음의 음운 체계에 맞게 문자 체계를 설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말의 음운 체계를 연구하는 일과 우리 한자음을 정리하는 문제는 일맥상통하는 것이니 이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최경봉 외, 2008: 117-119).

## 2) 8인 가운데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은 누구일까?

종래의 연구에 따르면 ‘해례’에 참여한 8인의 학사들 가운데 중국 성운학에 조예가 깊어 ‘훈민정음’ 창제와 ‘해례’ 집필에 지대한 기여를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으로 성삼문과 신숙주를 꼽는다.<sup>7)</sup> 이들을 일컬어 성음(聲音)의 대학자라 할 만큼 성삼문과 신숙주 모두 ‘훈민정음’ 창제를 둘러싼 중국의 성운학이나 성리학적 지식, 중국어 구사 능력이 빼어났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사료(史料)가 남아 있어 이들의 활약을 가늠해 볼 수가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45년 세종은 집현전 부수찬 신숙주와 성균관 주부 성삼문과 행 사용 손수산을 요동에 보내서 운서를 질문하여 오게 하였다.<sup>8)</sup> 명의 한림학사를 지낸 당대 성운학자 황찬(黃瓚)이 요동으로 유배를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삼문과 함께 십 여 차례 찾아가 운서에 대해 질문을 하는 등 그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대목이다. 이러한 기록은 신숙주와 성삼문의 언어 능력이 대단히 뛰어났음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된다. 이미 그들은 성운학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종의 명이 가능했을 것이며, 황찬과의 만남을 통하여 ‘운(韻)’에 대한 인식을 더욱 깊이 하고 식견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얻었을 것이다.

7) 이성연(1994:70-71)에서는 ‘해례’ 집필자들의 등용이 새로운 글자 창제를 결정하게 해주는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해주었다고 보고, 특히 성삼문과 신숙주의 내직 등용 연대에 주목하여 ‘훈민정음’ 창제 착수시기를 가늠해 보았다. 논의에 따르면 “정인지 직제학(1425년)·문과 장원(1427년), 박팽년 문과 급제(1434년), 최항 문과 장원(1434년), 이개 문과 급제(1436년), 성삼문 식년 문과 重試 장원(1438년), 이선로 식년 문과 급제(1438년), 신숙주 진사시 장원(1438년) 및 殿試 급제(1439년), 강희안 문과 급제(1441년)”로 새 문자 완성된 시기인 1443년을 감안하면 결정적인 글자 창제의 시기는 이들의 등용 이후라 볼 수 있으며, 창제자 자신이 직접 이들을 선발하여 본격적으로 새 글자 창제에 착수했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그런데 정인지는 세종 10년부터 12년까지 집현전 부제학을 지냈기 때문에 ‘훈민정음’ 창제에 직접적인 참여자로 보기 어렵고, 박팽년, 최항, 이개는 성삼문과 신숙주에 비해 기여도가 낮아 실질적으로 성삼문과 신숙주의 등용 이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고 있다.

8) 遣集賢殿副修撰申叔舟 成均注簿成三問 行司勇孫壽山于遼東[世宗 107卷, 27年(1445年) 1月 7日(辛巳) 5번 제 기사.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신숙주와 성삼문은 요동을 방문하여 운서에 대해 묻고 오라는 명을 내린 이 후에도 중국의 학자를 상대하는 조선의 대표적인 문장가이며 학자로 함께 나설 때가 잦았을 뿐만 아니라<sup>9)</sup>, 중국의 한림학사들이 사신으로 왔을 때 이 두 사람을 보내 시문을 화답하게 할 정도로 두 사람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식견과 문장력, 통역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언어 능력들이 공인되고 있었다.<sup>10)</sup>

그런데 위의 [표 1]를 보면 모든 사업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사업 때마다 승진을 한 인물이 눈에 띈다. 바로 신숙주이다. [표 1]로 미루어 보아 신숙주가 집현전에 들어간 시기는 성삼문의 집현전 초입 시기보다 빠르다. 그리고 그는 1439년에 집현전 부수찬으로 임명되면서 집현전 학사가 되었는데 《운회》 번역을 명받을 때까지 부수찬이었다가 ‘해례’가 간행될 당시에는 부교리로, 《동국정운》 편찬 시에는 응교로 승진하였다.<sup>11)</sup> 반면에 성삼문은 ‘해례’ 집필과 《동국정운》 편찬 당시 집현전 직제가 ‘수찬’으로 변동이 없다. 아마도 신숙주의 역량이 성삼문보다 상대적으로 컸을 것이라 짐작된다. 앞서 성삼문과 함께 활동한 자료 이외에 신숙주의 탁월한 언어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 이러한 짐작을 가능하게 해준다.

(1) 공이 한어·왜어·몽고어·여진어 등에 모두 통하여 때때로 혹시 통역의 힘을 비

9) 지금 오는 사신은 다 유자(儒者)이다. 신숙주 등이 교열한 운서를 질정(質正)하게 하고자 하니, 사신이 입경(入京)한 뒤에는 신숙주·성삼문 등으로 하여금 태평관에 왕래하게 하라(今來使臣 皆儒者也 申叔舟等所校韻書 欲令質正 使臣入京後 使叔舟成三問等往來太平館). [世宗 126卷, 31年(1449) 12月 28日(甲戌) 1번 째 기사, 출전: 국사편찬위원회]

10) 한림시강(翰林侍講) 예겸(倪謙)이 시 한 편을 지어 정인지에게 주니, 정인지도 즉시 운(韻)을 따라 지어 주었다. 이로부터 정인지·성삼문·신숙주와 더불어 창화(倡和)하기에 빈 날이 없었다(倪謙賦詩一篇 贈鄭麟趾 麟趾即次韻 自是與麟趾 三問 叔舟倡和無虛日). [世宗 127卷, 32年(1450) 庚午 閏1月 3日(戊申) 4번 째 기사,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11) 세종 2년(1420) 3월 왕궁 안에 집현전이라는 관사가 마련되고 직제가 공포되었다. 영전사(令殿事) 대제학(大提學) 등의 겸직과 더불어 부제학(副提學) 이하 직제학(直提學), 직전(直殿), 응교(應敎), 교리(校理), 수찬(修撰), 박사(博士), 저작(著作), 정자(正字) 등의 녹관(祿官), 즉 전임관을 두도록 하고 겸관들과 더불어 실질적인 집현전 학사로서 녹관 10명이 임명되었다(민현구, 2002:73-74).

는 일이 있어도 역시 스스로 뜻을 통했다. 나중에 공이 손수 외국어를 번역하여 나라에 바치니 통역들이 이에 힘입어 밝게 통하여 스승한테 배우지 않았다<sup>12)</sup>

(2) 공이 널리 여러 나라의 음운에 통하여 직접 여러 언어를 번역하여 왕께 바치니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스승의 가르침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서도 쉽게 깨우쳤다<sup>13)</sup>

(3) 세종께서 여러 나라가 각각 글자를 만들어서 제 언어를 기록하는데 홀로 우리나라만이 글자가 없다고 하여 자모 28자를 만드시어 언문이라고 이름을 지으시고, 궁중 안에 기관을 설치하여 문신을 뽑아 여러 서적을 짓게 할 때 공만 홀로 내전에 드나들며 임금의 재가를 직접 받아서 오음의 창·탁 구별과 성모·운모법을 정하고, 다른 학자들은 완성된 결과만을 받을 따름이었다.<sup>14)</sup>

(밑줄: 필자)

(4) 이달에 《동국정운》이 완성되니 모두 6권인데 명하여 간행하였다. 집현전 응교 신숙주가 교지를 받들어 서문을 지었는데<sup>15)</sup>

이처럼 신숙주의 우수한 언어학적 지식은 집현전 학자들과 더불어 ‘해례’를 편찬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이며, 중국의 전통 운서의 발음과 현실 한자음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에 근거하여 우리 한자음을 정리한 《동국정운》을 간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sup>16)</sup> 이와 같이 신숙주의 명석

12) 公 俱通漢倭蒙古女眞等語 時或假舌人 亦自達意 後公手翻 譯語以進 舌人 賴以通曉 不假師授(《保閑齋集》 卷十一附錄 行狀. 晉山 姜希孟 撰).

13) 公 旁通 諸國音韻 手翻諸譯以進 學譯者 不煩師授 易以通曉(《保閑齋集》 卷十一附錄 碑銘. 陽城 李承召 撰).

14) 世宗 以諸國各製字 以記國語 獨我無之 御製字母二十八字 名曰諺文 開局禁中 擇文 臣撰定 公 獨出入內殿 親承睿裁 定其五音清濁之辨 紐字諧聲之法 諸儒受成而已(《保閑齋集》 卷十一 附錄 碑銘. 陽城 李承召 撰).

15) 是月《東國正韻》成 凡六卷 命刊行 集賢殿應教申叔舟奉教序(世宗 117卷, 29年 (1447) 9月 29日(戊午) 2번 째 기사. 출전: 국사편찬위원회).

16) 《동국정운》을 함께 찬술한 이 가운데에는 ‘해례’ 편찬에 참여하여 서문을 썼던 우두머리격인 정인지가 빠져있다(본문 [표 1] 참조). 그렇다면 그 다음의 높은 직책 및 연장자인 최항이 쓰는 것이 옳았을 터인데 신숙주에게 돌아갔다. 《동국정운》 편찬에 신숙주의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활약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한 자질과 탁월한 외국어 실력은 물론이거니와 음운에 대한 깊이 있는 학문적 소양을 겸비하였으므로 세종으로부터 지우(知遇)와 신임을 받기에 마땅하였다. 결과적으로 집현전을 중심으로 한 《훈민정음》의 완성과 운서의 정리를 도모하는 사업의 총지휘자는 세종이었고, 신숙주를 위시한 집현전 학사들은 세종이 추진하는 사업의 주요 실무진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sup>17)</sup> 특히 ‘해례’ 집필에서는 대선배인 정인지를 총책임자로 두고 언어학적 이론에 가장 밝았고 세종의 지우(知遇)를 받았던 신숙주가 핵심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3) 나머지 7인의 집현전 학사들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을까?

이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여 몇 가지 정황 상 추정만이 가능할 뿐이다. 위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해례’ 집필에 참여한 8인은 뒷날(문종 1년) 집현전 응교로 발탁되는 강희안을 제외하면 모두 당시 집현전 학사들이다. 강희안은 운서 번역 사업 및 ‘해례’ 편찬에 참여하였으나 당시 집현전 학자는 아니었고 세종의 인척으로 돈녕부 주부였다. 백두현(2009:105)에서는 5解의 마지막 7언 고시체의 ‘訣曰’ 부분은 당시 시문에 능하여 명망이 있었던 강희안이 지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시(時)·서(書)·화(畵)에 뛰어난 인재였음은 분명하다.

한편, [표 1]에서 8인의 집현전 학사들 가운데 정인지는 ‘해례’ 편찬에만 참여하였다. 그는 세종 10년(1428) 집현전 부제학에 임명되었고, ‘해례’ 간행 당시 예조 판서로서 예문관 대제학을 겸하여 학술 문화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기에 해례본의 후서를 쓸 자격이 충분하였다. 겸직을 할 수 있는 집현전 고관으로 ‘해례’ 편찬 과정을 총괄하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역할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김남이(2004:68-69)에 따르면 최항은 집현전에 들어간 이래 18년 동안 강설(講說)과 사명(辭命) 짓는 일을 전담했고, 외교문서 등 공문서 작성에 필요

---

17)

한 변려문에 특히 능했다고 한다. 이러한 최항의 노련한 문서 작성 방식이 ‘해례’ 텍스트 기술 방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리고 《연려실기술》 별집(別集)에 박팽년에 대한 기사에 성삼문과 이개를 언급하고 있다. “성삼문은 문장이 호방하나 시(詩)는 모자랐으며, [중략] 이개는 문장이 맑고 발월(發越)하였으며 시(詩)도 또한 정묘(淨妙)·기절(奇節)하였으나 동료들은 모두 박팽년을 집대성이라 하니 그의 경술과 문장 필법이 모두 훌륭한 것을 말한다.” 이처럼 성현이 성삼문과 이개의 문장력과 필법을 우수하게 평가하면서도 박팽년이 경술과 문장을 집대성하였다고 한 것은 박팽년의 뛰어난 재능과 학문적 역량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말이다(김남이, 2004:43-44).

#### 4) 공동 집필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해례’ 부분은 세종의 핵심 아이디어인 ‘예의’ 부분을 거의 완벽하게 풀이해 내고 있는데 이는 세종과 집현전 학사 8인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글쓰기를 계획하고, 내용을 생성하고, 작성하고, 고쳐쓰기를 거듭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해례’ 텍스트를 위해 여러 필자가 의미를 어떻게 협동적으로 구성하고 그들의 역할이 어떠했을지 따라가 보자.

##### 가. ‘해례’의 협동적 글쓰기(collaborative writing)

‘해례’는 집현전 학사 8인 공동 저자로 협동적으로 글쓰기(collaborative writing) 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세종은 ‘해례’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을 것이므로 집현전 학사들의 의미 구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를테면 집현전 8인이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합의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에 의해 받아들여 쓸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다시 하기도 했을 것이다.

특히 ‘해례’의 협동적 글쓰기(collaborative writing)는 계층적이면서도 대화

적 협동의 특성을 동시에 보였을 것이다. 이들의 목표는 ‘세종’에 의해 선정되었기 때문에 협동의 형태는 고도의 구체적인 목표에 대하여 주의 깊고 신중하면서도 조직적으로 이끌어졌을 것임은 자명하다. 그리고 ‘세종’의 주도 하에 집현전 학사 8인의 협동 그룹 내의 조직에서 상위자나 구성원의 연장자(정인지) 또는 세종이 지목한 리더(신숙주 등)를 중심으로 구성원의 역할이 분명하게 정의되고 개인의 책무성이 강조되는 활동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계층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협동적 글쓰기 과정은 각 개인의 개성과 능력이 상호 이질적인 구성원들이 ‘해례’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야 하므로 대단히 상호 의존적이었을 것이다. 대화적인 협동은 군신 간의 다양한 의견과 다면적인 접근 속에서 창조적이면서도 집단의 책무성이 강조되었을 것이다.

#### 나. ‘해례’의 협동적 글쓰기(collaborative writing) 형태

이처럼 ‘해례’ 협동적 쓰기는 계층적이고 대화적 협동에 의해 진행되는데 구체적인 작업을 위해 구성원을 어떻게 조직하는가, 또는 그들이 어떻게 과제를 수행하는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을 가정해 볼 수 있다.

- ① 의미 공동 구성자는 계획하고, 내용을 생성·조직한다. 집현전 학사 가운데 한 사람이 전체적인 초고를 쓴다. 공동 구성자가 교정한다.
- ② 의미 공동 구성자는 계획하고, 내용을 생성·조직한다. 집현전 학사 각 구성원들은 분담된 부분의 초고를 쓴다. 공동 구성자가 교정한다.
- ③ 집현전 학사 대표 한 사람이 쓰기 과제를 전체적으로 맡는다. 각 구성원은 대표로부터 분담된 개별적 과제를 실행한다. 대표가 그 부분들을 교정한다.

이 가운데 ‘해례’ 집필의 계층적이고도 대화적인 협동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유형은 무엇인가? 우선, 글쓰기 전(prewriting) 단계에서 협의하기는 대단히 중요했을 것이다(유형 ①, ②). 대화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자료(‘예의’ 등)를 바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를 함께 논의하는 작

업은 글쓰기 전체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의미 공동 구성자는 앞으로 쓸 ‘해례’ 텍스트에 대해 의미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 협의한다. 다양한 의견 개진과 합의된 사항은 의미 구성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각기 다른 능력과 개성을 가진 구성원과 협의함으로써 의미 구성 및 정교화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초고 쓰기가 한결 쉬워진다.

둘째, 작성하기 단계에서는 의미 공동 구성자들이 서로 협의한,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한 사람이 대표로 글을 쓸 수도 있다(유형 [1]). 이와 같은 ‘대표 1인 쓰기’의 경우에는 집현전 학사 모두가 직접 글을 쓰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례’라는 공동 목표에 대한 개인 책무성 및 집단 책무성은 약해진다.

한편, 구성원들이 역할 분담을 하여 각자 맡은 부분을 쓰고 그것을 결합하여 하나의 글을 결합할 수도 있다(유형 [2]). 역할 분담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을 나누어 쓰는 부분적 글쓰기가 있을 수 있고, 전체 글의 부분을 이어서 쓰기가 있을 수 있다.<sup>18)</sup> ‘해례’의 구성 상 미루어 볼 때 이어서 쓰기보다는 부분적 글쓰기가 적합하였을 것이다. 5解 1例를 각각 일정하게 나누어 개인이 전문적으로 맡아 쓰되(‘개인별 쓰기’), ‘제자해’의 경우는 조금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sup>19)</sup> 주지하다시피 ‘제자해’는 ‘해례’ 가장 중요한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으로 비교적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따라서 집현전 학사 8인 중 ‘훈민정음’ 창제에 보다 직접적으로 참여하였고, 성리학 및 성운학에 대한 지식이 겸비된 역량 있는 학사 1인 이상이 나누어 쓴 후 이를 전체 통합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여럿이 나누어 쓰기’)<sup>20)</sup>.

---

18) 국어교육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자를 직소(jigsaw)에 의한 부분적 글쓰기, 후자를 릴레이식 글쓰기라고 한다.

19) 백두현(2009:105)에서는 5解의 마지막 7언 고시체의 ‘訣曰’ 부분은 당시 시문에 능하여 명망이 있었던 강희안이 지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고, 정인지가 후서를 썼으니 남은 여섯 사람이 각각 5해 1례를 각각 맡아 초고를 작성하고 다시 공동 토론하여 수정하는 방법으로 작업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20) ‘여럿이 나누어 쓰기’는 개인별로 작성한 후에 전체 통합을 한다. 대체로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주제에, 비교적 많은 분량의 글에, 비교적 오랜 기간 소요되는 글쓰기에,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 정보 전달하는 글에 대단히 유용한 협동적 글쓰기

셋째, 고치기 단계는 글을 쓴 구성원들이 어떠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전체의 협의 과정을 바탕으로 한 사람이 쓴 경우(유형 ①)는 다른 구성원들이 지적한 바를 바탕으로 다시 협의하여 글을 고치게 된다. 이때 결과물로 생성된 글은 전체 공동 구성원들이 협의한 결과물로 한 편의 작품이 완성되게 된다. 한편, 부분적으로 글을 써서 합친 경우(유형 ②)는 우선 전체적인 통일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글의 부분들을 잘 살펴야 한다. 그리고 각자 다른 필자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여 한 편의 글로서 통일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써서 합친 경우에도 공동 구성원 전체 협의 과정을 거쳐 한 편의 글이 완성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해례’의 글쓰기 과정에는 모든 단계에 ‘협동(cooperative)’과 ‘협력(collaborative)’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 3. ‘해례’ 생산 과정에서의 상호텍스트성

일반 글쓰기의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주제를 선정하는 화제 선택과는 달리 ‘해례’는 주제가 주어진 상황에서 기준 텍스트인 ‘예의’가 제시되어 있다. ‘예의’ 텍스트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텍스트로서 집필자들이 이 기준 텍스트를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의미를 찾아 새로운 텍스트인 ‘해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작용한다.<sup>21)</sup> 곧 기준 텍스트인 ‘예의’의 내용이 ‘해례’의 의미 구성에 중요한 단서 및 참고 내용이 된다는 점에서 이들은 상호텍스트성을 갖는다.

본 장에서는 ‘해례’에 반영된 상호텍스트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해례’ 텍스트 생산자는 기준 텍스트를 끊임없이 참조하는 텍스트 수용자들로 기준 텍스트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세종이 지은 ‘예의’

---

유형이다.

21) 김도남(2003)에서는 이와 같이 하나의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를 구성 및 생산하는데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을 통제 관계 텍스트라 하였다. 다중 텍스트 구성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도남(2003:296-297) 참조.

텍스트를 ‘해례’ 텍스트에 어떻게 수용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대단히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상호텍스트성의 속성 이해는 집필자들의 의미 구성 과정 및 ‘해례’의 생산 과정을 추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의’와 ‘해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상호텍스트성은 첫째, ‘예의’의 특정 내용 요소가 ‘해례’에 반복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속성을 ‘수용’이라고 본다. 수용은 텍스트 요소의 반복으로 텍스트들 간에 상호텍스트성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다. ‘해례’를 작성할 때 기준 텍스트인 ‘예의’의 내용을 수용하여 그것의 반복을 통해 ‘해례’라는 새 텍스트를 만드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둘째, ‘예의’에서 수용한 내용 요소의 모습이 ‘해례’에서는 바뀐 모습으로 나타난다. 내용의 바뀔보다는 외형이 바뀐다. 이를 ‘변형’이라고 한다. 변형은 수용된 텍스트 요소의 모습이 바뀌는 것이다. 수용된 텍스트 요소의 내용을 재조직하는 등 외형이 바뀌게 된다. ‘해례’를 쓰기 위하여 기준 텍스트를 읽을 때 주제와 관련된 내용 요소의 연결 고리를 만들게 되고 이러한 연결 고리들을 이어서 재조직하게 되면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 셋째, ‘선택’이다. 텍스트 구성에 필요한 요소를 취하는 것으로 대단히 의도적이다. ‘예의’로부터 수용한 요소를 필요한 형태로 바꾸거나 텍스트 요소에 필요한 내용을 부각시킨다. 마지막으로 상호텍스트성의 본질적 속성은 ‘생성’이다. 생성이란 그야말로 새로운 텍스트를 만드는 것이다. 집필자들은 ‘예의’의 내용 요소와 관련이 있으면서도 이보다 더 구체적이고 차별적인 의미를 구성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다. ‘詳加解釋’의 텍스트가 목표인 만큼 ‘예의’에 제시된 내용 요소의 반복에서 벗어나 보다 새롭고 가치 있는 정보의 추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 [표 2]와 [표 3]은 이러한 ‘예의’와 ‘해례’의 내용 요소를 분석한 결과 나타난 상호텍스트성이다.

'예의'	'해례'		상호텍스트성의 속성
초성의 글꼴과 음가 <sup>22)</sup>	제자해	청탁에 의한 소리 분류 <sup>23)</sup>	변형('예의'의 후음과 같은 청탁배열 순서)
		전탁자와 병서 <sup>24)</sup>	변형(용어 <sup>25)</sup> , 全濁 자형 제시)
	초성해	초성자가 쓰이는 위치 및 예시 <sup>26)</sup>	수용(초성자 해당 한자) 변형(아음자가 쓰이는 위치 및 한자음 예시, '예의'의 후음과 같은 청탁 배열 순서) 선택(설·순·치·후음자는 한자들만 열거)
중성의 글꼴과 음가 <sup>27)</sup>	제자해	중성 11자	수용(자형, 배열 순서)
	중성해	중성 기본자 쓰이는 위치 및 예시 <sup>28)</sup>	수용(기본자 해당 한자) 변형(기본자가 쓰이는 위치 및 한자음 예시)
		초출자·재출자 쓰이는 위치	수용(초출자·재출자 해당 한자) 선택(초출자·재출자는 한자들만 열거)
중성 규정 <sup>29)</sup>	제자해	중성 제자 규정 및 음양의 이치 <sup>30)</sup>	수용(제자 규정) 생성(제자 규정에 대한 음양의 이치)
	중성해	중성자가 쓰이는 위치 및 예시 <sup>31)</sup>	생성 수용(기본자 一 해당 한자, 초출자 ㄴ 해당 한자) 선택(아음자 ㄱㅇ가 쓰이는 위치 및 한자음 예시)
연서법 <sup>32)</sup>	제자해	순경음과 그 음가 <sup>33)</sup>	수용(연서법에 의한 순경음) 생성(순경음의 음가)
	합자해	반설경음과 그 음가 <sup>34)</sup>	수용(연서법) 생성(반설경음과 음가)
병서법 <sup>35)</sup>	합자해	초성 2字·3字 합용병서와 우리말 예시 <sup>36)</sup> 초성 각자병서와 우리말 예시 <sup>37)</sup> 중성 2字·3字 합용병서와 우리말 예시 <sup>38)</sup>	수용(초성·중성 합용병서) 변형(초성·중성 2字·3字 합용병서) 생성(초성 각자병서, 중성 2字·3字 합용병서, 우리말 예시)

		중성 2字·3字 합용병서와 우리말 예시 <sup>39)</sup>	
부서법 <sup>40)</sup>	합자해	초성과 중성 위치 및 예 시 <sup>41)</sup>	수용(초성자 ㄱㅇ 해당 한자, 중성기본 자 해당 한자) 변형(초성과 중성의 위치 설명) 생성(초성 중성 위치 예시)
성음법 <sup>42)</sup>	제자해	철학적 원리에 바탕을 둔 음절 인식 <sup>43)</sup>	생성
	합자해	음절합자 <sup>44)</sup>	변형
사성법 <sup>45)</sup>	중성해	소리의 완급에 따른 중성 자의 성조 <sup>46)</sup> 완급에 따른 중성자의 대 립 <sup>47)</sup>	수용(입성의 측급) 변형 및 생성
	합자해	국어의 사성과 방점법, 국 어입성과 방점 특징 <sup>48)</sup>	수용(방점법) 변형(국어의 사성과 방점법에 대한 예 시) 생성(국어의 입성과 방점 설명)

[표 2] '예의'와 '해례'의 상호텍스트성

- 22) ㄱ牙音如君字初發聲 並書如虬字初發聲 ㅋ牙音如快字初發聲 ㅇ牙音如業字初發聲  
ㄷ舌音如斗字初發聲 並書如覃字初發聲 ㅌ舌音如吞字初發聲 ㄴ舌音如那字初發聲  
ㄹ唇音如孃字初發聲 並書如步字初發聲 ㄴ唇音如漂字初發聲 ㄴ唇音如彌字初發聲  
ㄷ齒音如卽字初發聲 並書如慈字初發聲 ㅌ齒音如侵字初發聲  
ㄴ齒音如戍字初發聲 並書如邪字初發聲  
ㅇ喉音如挹字初發聲 ㅎ喉音如虛字初發聲 並書如洪字初發聲 ㅎ喉音如欲字初發聲  
ㄴ半舌音如閭字初發聲 ㄴ半齒音如穰字初發聲
- 23) 又以聲音清濁而言之 ㄱㄷㅌㅍㅈㅊ 爲全清 ㅋㅌㅍㅈㅊㅎ 爲次清 ㄱㄷㅌㅍㅈㅊㅎ 爲全濁  
ㅇㄴㄹㅇㄴㄹ 爲不清不濁
- 24) 全清並書則爲全濁 以其全清之聲凝則爲全濁也
- 25) 정우영(2001)에서는 '예의'에서 전청자의 다음 행에 '並書'를 사용한 것은 '예의'가  
공시문(公示文)이라는 텍스트 기능 상 일반인의 수준에 맞추어 전문 용어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용자의 수준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전문 용어가 어  
려워 표기법 용어로 대체한 것이라면 오히려 자형(ㄱㄷㅌㅍㅈㅊㅎ)을 제시해 주는 것  
이 더욱 적절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 26) 如牙音君字初聲是ㄱ ㄱ與ㄴ而爲ㄴ 快字初聲是ㅋ ㅋ與ㅌ而爲ㅌ 虬字初聲是ㄱ ㄱ與  
ㅌ而爲ㅌ 業字初聲是ㅇ ㅇ與ㅌ而爲ㅌ之類 舌之斗吞覃那 唇之孃漂步彌 齒之卽侵慈戍  
邪 喉之挹虛洪欲 半舌半齒之閭穰 皆倣此



- 69 -

특히 [표 3]은 ‘해례’에만 있는 내용 요소를 추려낸 것인데, ‘해례’의 의미 공동 구성자들이 택한 상호텍스트성의 본질적인 속성인 ‘생성’ 기제로부터 비롯된 내용들이다. 이로써 ‘해례’를 ‘예의’와 차별되는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하나의 독립된 텍스트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예의’를 기준 텍스트로 삼아 상호텍스트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텍스트이지만 일정한 내용 범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의’와는 구별되는, 완결된 텍스트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제자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민정음’의 성리학적 배경</li> <li>• 초성 17자 제자 원리와 음양오행의 이치</li> <li>• 불청불탁자 ㄴ ㄹ ㅍ ㅍ를 기본자로 삼은 이유</li> <li>• 아음 ㅛ을 기본자로 삼지 않은 이유</li> <li>• 전청자가 영겨 전탁자가 되는 이치</li> <li>• 후음은 차청을 전탁자로 삼은 이유</li> <li>• 순경음의 음가 설명</li> <li>• 중성 11자의 음가, 제자 원리, 음양오행 및 易數의 이치</li> <li>• 철학적 원리에 바탕을 둔 음절 인식</li> </ul>
초성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성자의 정의</li> </ul>
중성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성자의 정의</li> <li>• 2字 合用字 만드는 방법(同出字, 1字·2字   相合字)</li> </ul>
종성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성자의 정의와 위치 예시</li> <li>• 8종성과 용례</li> <li>• 반설음 ‘ㄹ’의 한자음 종성 사용 불가</li> </ul>
합자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성 각자병서와 우리말 예시</li> <li>• 중성 2字·3字 합용병서와 우리말 예시</li> <li>• 한자와 우리말 혼용 표기 방법과 예시</li> <li>• 초성 후음 ㅛ ㅜ 국어 표기 통용</li> <li>• 반설경음(ㄹ)과 음가</li> <li>• 방언에 존재하는<sup>1)</sup></li> </ul>
용자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성자·중성자·종성자 용례</li> </ul>

[표 3] ‘해례’에만 나타나는 내용 요소

새로운 의미를 담은 새로운 텍스트 창조는 글쓰기 목적을 바탕으로 기존 텍스트에 접근함으로써 내용 요소를 수용하거나 변형하거나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례’는 ‘예의’의 정보 수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존 텍스트의 ‘간략’한 내용 정보에 필자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새로운 정보를 제시해야 하고, 정보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부담이다.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표 2]와 [표 3]을 보면 ‘예의’와 ‘해례’의 상호텍스트성에서 ‘수용’과 ‘변형’, ‘선택’에 비해 ‘생성’의 속성이 크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예의’ 텍스트의 필수 내용 요소를 중심으로 관련된 새로운 내용 요소들을 추가하되 논리적이고 체계에 맞게 결합하여 독립된 텍스트로 구성해 낸 것이다. ‘해례’는 전체 구조 상 의미 관계가 밀접하게 구성되어 있다. ‘해례’ 텍스트를 구성하는 내용 요소들을 병렬적으로 나란하게만 놓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의미 관계를 논리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위계적 접근 방식을 취하였다. 의미 공동 구성자들의 상호텍스트성과 함께 위계적 접근 방식을 고려한 협동적 글쓰기임을 알 수 있다.

#### 4. 맺음말

##### 참고문헌

- 강신항(2004). “문정공 최항 선생의 생애와 업적”. 《어문연구》 32-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427-447.
- 김남이(2004). 《집현전 학사의 삶과 문학 세계》. 태학사.
- 김도남(2003). 《상호텍스트성과 텍스트 이해 교육》. 박이정.
- 김부연(2009). “『훈민정음』 해례본의 국어과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부연(2012). “《훈민정음》 사진 자료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어학》 55. 한국어학회. 103-137.

- 김부연(2013). “《훈민정음》 ‘용자례(用字例)’를 활용한 어휘 교육 방안 모색”. 《한국어문 교육》 13.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7-36.
- 김슬옹(2009). 《세종대왕과 훈민정음학》. 지식산업사.
- 김유범(2009). “텍스트 구성 차원에서 바라본 해례본 『훈민정음』 기술 내용의 몇 문제”. 한국어학 43. 한국어학회. 105-124.
- 민현구(2002). “신숙주와 집현전 학자들”. 《새국어생활》 12-3. 국립국어원. 71-87.
- 박덕규(1995). 《신숙주 평론》. 등지.
- 박지홍(1986). “원본 훈민정음의 짜임 연구: 예의와 꼬리말의 내용 견줄”. 《석당논총》 12. 동아대학교. 141-156.
- 백두현(2009). “《훈민정음》 해례본의 텍스트 구조 연구”. 《국어학》 54. 국어학회. 75-107.
- 안병희(2007). 《訓民正音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광호(2005). “《訓民正音 解例本》의 ‘解’와 ‘例’에 제시된 일부 ‘實例’에 대한 검토”. 임홍빈 외. 《우리말연구: 서른아홉 마당》. 태학사. 519-537.
- 이광호(2006). “《訓民正音 解例本》에서의 ‘本文’(例義)과 ‘解例’의 내용 관계 검토”. 이병근선생 퇴임기념 편집위원회 엮음. 《국어학논총》. 태학사. 1397-1413.
- 이광호(2010). “훈민정음 해례본의 편찬에 대한 가설”. 《제181회 전국 학술대회 기조강연 발표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vii-xix.
- 이성연(1994).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 32. 한국언어학회. 65-80.
- 정광(2006). 《훈민정음의 사람들》. 제이앤씨.
- 정우영(2001). “훈민정음 한문본의 낙장 복원에 대한 재론”. 《국어국문학》. 129. 국어국문학회. 191-227.
- 정우영(2014). “《訓民正音》 해례본의 ‘例義篇’ 구조와 ‘解例篇’과의 상관관계”. 《국어학》 72. 국어학회. 103-153.
- 최경봉·시정곤·박영준(2008). 《한글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책과 함께.
- 홍기문(1946). 《正音發達史(上)》. 서울신문사 출판국.
- Nancy Nelson Spivey(1997). *The Constructivist : reading writing and the making of meaning*. Academic press. 신헌재 외 역(2005). 《구성주의와 읽기·쓰기》. 박이정.